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이주여성들의 #Me Too

2018년 3월 9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

공동주최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 365mc, 한국여성재단, 지원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주여성들의 #Me Too

2018년 3월 9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

이주여성들의 #Me Too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절반은 여성들이다.

이주여성들은 결혼, 노동, 유학, 관광 등으로 입국하여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거센 ‘미투운동’에도 이주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왜 이주여성들은 드러낼 수 없는가?

사회: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사말	정춘숙 국회의원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발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사례 - 캣소파니 (캄보디아공동체)
	태국 여성들의 마사지업소에서의 경험 - 니감시리 스리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 필리핀 여성 사례 오혜진 (필리핀 통역)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공존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중국 유학생 성폭력 사례를 보며 - 동애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요구안 발표	현장경험을 통해서 본 이주여성들의 요구 -이레샤 톡투미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표1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사례

캣소파니

캄보디아공동체

이주여성들의 #Me Too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캣소파니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이주여성으로서 저와 같은 이주여성의 인권지원에 관심이 있었고 201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주여성인권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에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일도 서툴고 한국말도 잘 몰랐고 주변 지역이나 장소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장이 데려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두렵고 무섭고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습니다. 비록 억울했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후로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피해여성 싫다고 거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장의 성폭행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계속 당하면 지옥에 살 것 같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사촌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촌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쉼터에 입소하여 법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행하며 통번역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7개월간 지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사람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무엇보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 법으로 재판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면 미등록(불법체류)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피해를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의 법도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피해증거를 모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에도 놓이게 됩니다.

저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피해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장의 기숙사가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지 않아 이주여성노동자가 이주남성노동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용하는 기숙사가 비닐하우스로 되었거나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씻는 곳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로 분리된 공간도 없이 한 공간을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설사 분리되어 있더라도 잠금장치도 없어 언제든지 사장이나 다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이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도 함께 외쳐질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와 기숙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이주여성들을 포괄하는 여성 폭력과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발표2

태국 여성들의 마사지업소에서의 경험

니감시리 스리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Me Too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결혼 이주한 니감시리 스리준 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통·번역단에서 프리랜서로 통·번역 지원을 하면서 태국에서 온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성폭력 사건을 당한 태국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국과 한국은 사증면제로 90일간 단기체류가 가능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은 한국의 마사지샵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국에 오는 태국여성들이 많고, 그들은 거짓정보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단기로 3개월만 마사지 일을 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한국에이전시와 태국에이전시의 말만 믿고 여성들은 월 150-200만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마사지 업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치도 정확히 모르는 조그만 가게에서 여성들은 우선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뒤 하루에 5~7명의 손님이라는 한국남자를 받으라는 강요를 당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줄만 알고 들어왔으니 돌아가겠다고 하면 사장은 비행기 값과 에이전시 비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돈이 대부분 1천만원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왔으나 오히려 여성들은 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기를 강요받습니다. 못 내겠다고 하면 태국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합니다.

제가 만났던 여성 중 한명은 자궁수술을 받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매일 성매매에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장들은 손님 50명을 채우고 나서는 여성들에게 일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돈 중 일부라도 받으면 태국으로 갈 생각에 참고 견디는 여성도 있지만 변태

적인 성관계를 요구받고 태국의 가족들에게는 연락도 못하게 하여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겨우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에서 태국의 가족과 연락을 하여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호텔로 와서야 안전한 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들은 많이 읍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가족들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은 태국이나 한국이나 같습니다. 여성들은 원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당했으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숨기기에 급합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에서 태국에서 버는 것 보다 수십 배의 돈을 번다고 할 때는 성매매란 것을 아는 거지. 그걸 몰랐니?”등의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많이 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2차 가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주여성들이 당한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은 유명인, 권력자들이어서 사람들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을 성폭력 하는 가해자들은 그런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며 마사지 업체 사장, 공장 사장, 감독관, 농장사장 같은 평범한 한국남자들입니다. 이러한 점이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사건에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이주여성들의 피해사실이 더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끼리만 말하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주여성들은 돈만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노동자로 한국에 온 길은 달랐지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발표3

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필리핀 여성 사례

오혜진

필리핀 통역

이주여성들의 #Me Too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오혜진입니다. 프리랜서로 통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들어봤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2016년에 한 이주여성이 친정가족을 초청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은 여성의 결혼식 45일전에 필리핀에서 제주도로 입국해 이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4일 전에는 여동생이 형부 될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아온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정의를 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더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아픈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피해자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사를 통해 말하는 것이 제대로 통역 됐는지 신경을 많이 썼고,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통역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당했던 성희롱이 생각났습니다. 당하고 나서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지. 말하면 믿어줄 것인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했다는 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그 답답한 것을 가슴 속에만 담아뒀습니다. 피해자는 바로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말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마음 힘들고 가족까지 걱

정을 했는데도 당하고 있지만 앓을 거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참 용감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들은 폭력이나 인권 침해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여성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며 몸이 멍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폭력을 참아야만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자기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남편이 감춰 집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 도망을 쳐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 여성은 임금 차별을 받습니다. 영어 원어민 아니라며, 영어 학원에서 다른 원어민 강사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급여가 낮아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못 한다’, 그리고 ‘피부가 까맣다’고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을 경험해 왔습니다. 외국에 왔으니 그 나라 말을 당연히 배워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 하도록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 피부를 한국사람 피부색처럼 만드는 것은 못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필리핀 사람은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아 피부가 하얗게 되지만 몸에 좋지 않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 것이고, 앞으로도 제 피부색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도 점점 글로벌 시대를 말하고 있어서 조만간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 이상 폭력, 성폭력,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분들에게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애

기들을 두렵고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들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해도 상담기관이나 친구에게라도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이주 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4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공존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Me Too

성폭력과 가정폭력 저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 통번역,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 인권증진 활동을 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원한 대상들은 주로 이주여성들이지만 한 사람을 상담하고 지원해서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지만 그 가족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됩니다.

제가 접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성폭력사건을 알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요청으로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사돈의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사돈의 친구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사돈이 밖에서 망을 봐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재판 과정에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원심문과정에서 가해자의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신의 고통스런 피해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으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겪은 고통과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인해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퇴행적인 이상행동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자녀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베트남 가족에게 알려져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없게 되어 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겪은 성폭력으로 인해 고향까지 소문이 퍼져 2차, 3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피

해로 인해 이혼의 위기를 겪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부분 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한 체류, 혹은 이주,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으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종차별, 여성 차별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형부에 의한 이주여성 성추행 사건입니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여동생이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남편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언니는 상황을 계속 두면 남편이 여동생을 성폭행할 것 같아서 아이3명과 동생을 데리고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언니 입장이 난감했습니다. 동생을 선택해서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면 혼자서 자녀3명을 키울 엄두가 안 나고 남편을 선택해 남편의 잘못을 눈감고 살려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성은 이혼하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없어진다는 것과 자신이 한국 국적이 없고 남편에게 의존해야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신분으로 자신이 혼자서 자녀3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도 결혼이라는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나 가족이 해제될 경우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신원보증 없으면 체류연장조차 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이 만료 되면 미등록(불법체류자)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는 이주여성이 혼인생활에 혼자서도 체류연장,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을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일선에서는 확인절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력 피해를 입고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의 성폭력입니다. 2015년 쉼터 입소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남편에 의해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생리 중에도 남편에게 성관계를 요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성관계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요구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용

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이혼을 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상담을 통해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한계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하는데 한국말이 서툴며 한국의 법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이 폭력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 녹취, 사진 찍는 등 증거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에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이 한국에 입국 한 후 가족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귀화, 영주권을 가지기 전 이혼한 경우 이주여성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신체적 폭력에 국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등은 그 폭력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신원보증인 이주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남편이나 시집가족에 의해 체류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폭력피해에 신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 사건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사건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이 시작되기 전 먼저 발생한 사건은 이주여성이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재판과정에서 남편과 시가족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았으나 여성이 끝까지 재판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원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으나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피해여성의 출산 경험이었습니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아동기에 소수민족의 풍습으로

납치 강간을 당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를 출산했고, 이후 가해자로 부터 도망쳤으며 고향에서도 떠나 혼자서 살았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이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성이 어렸을 때 성폭력으로 인해 출산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나 전북지방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대법원을 통해 재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서 성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은 가해자의 가족에 의해 처벌적 의미의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졌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 남편과 시가족 측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아동기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는 등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여성은 한국을 떠나야 할 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2차 피해가 오지 않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당당하게 신고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서 안 되고, 이주여성이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 모두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5

중국 유학생 성폭력 사례를 보며

동애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들의 #Me Too

안녕하세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국상담원 동애화입니다.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많은 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성폭력사례는 중국의 유학생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녔으며, 교사로 취직을 하여 안정적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교우회의 모임에서 한국여행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 기후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알고자 한국어학당에 등록하여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외진 곳으로 유인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식사자리에서 술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혼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핑계로 근처의 모텔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에 가해자는 절대로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고 피해자도 음주운전이 불가함을 잘 알기에 가해자를 믿고 따라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6시간 남짓 폭행을 당하고 겨우 도망쳐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었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겨우 기숙사로 돌아왔으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외출도 못하

고 수면과 음식은 물론 물 한방을 마시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려하였고 지인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언어소통으로 경찰의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인사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는 피해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매번 조사를 할 때 마다 피해상황을 떠올리며 진술을 해야 했던 피해자는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병원의 약을 복용해야 했고 80회기 이상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고통 속에서 벗어나 차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 기후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공부를 시작하였던 학생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점과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성폭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충분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출입국에서 체류연장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다시 입증해야하거나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연장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직장에서의 성추행으로 고통을 당해 직장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이라 참고 당하며 일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미투의 열풍에 그들의 합류를 요구하고 싶었으나 과거의 상처를 되짚어보고 나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리고 미투의 열풍이후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해 그들이 받은 고통을 호

소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들에게 가해자들은 한국에서 믿고 의지하였던 남편이고 친구이고 상사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의 정의 앞에서 언젠가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이주여성들의 상처를 깨끗이 잊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는 유학생 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대한 기억은 상처투성이 뿐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욕망으로 한 여성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며, 나라 이미지를 흐려 놓았습니다.

후광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좋은 현상에 현혹되면 그로부터 전체 현상을 결론짓는 경향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미투운동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좋은 후광효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구안 발표

현장경험을 통해서 본 이주여성들의 요구

이레샤 톡투미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Me Too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는 100만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미투 운동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최근의 여성들의 말하기가 이주여성들만 섬처럼 제외해놓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에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인해 더더욱 미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 태국여성은 한국 남성의 성폭력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습니다. 불법 체류 미등록 신분임을 알고 있던 한국인 남성 동료가 단속을 피해야 한다며 이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단속은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 구금, 출국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인 남성 동료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태국 여성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수시로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해자는 한국인 남성이지만 법무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받아도 성폭력 위험 노출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해 가해자와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인 형부가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했는데 적극적 저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합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만 강간죄라고 하는 법체계는 성폭력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무죄라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들과 함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의 폐지를 요구하며, 이주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히 요구합니다.

1.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 모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 마련을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핫라인 기능을 확충하고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여성 전담상담소를 요구합니다.
 - 모든 체류 유형을 아우르는 이주여성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 외국인력지원센터, 동포지원센터, 1345 등 정부 지원 외국인 관련 상담에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전담 창구 마련을 요구합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체류 기한 동안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지원을 요구합니다.
 -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시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모국어로 된 자료 제공을 요구합니다.
2. 체류 불안 없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출국은 2차 가해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젠더 기반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의 합법 체류보장을 요구합니다.
 -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피해 보상을 위한 민·형사 소송 등 해당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체류 보장을 요구합니다.
 - 합법적인 결혼 통로로 이주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전 보장을 요구합니다.
 - 사망 이혼으로 혼인 단절을 경험한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등 신분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 폐지를 요구합니다.
3.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을 요구합니다.
 - 사업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 철회를 요구합니다.

- 성폭력에 노출 위험이 큰 기숙사 제재 규정 마련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숙사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 교육 과정에 여성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통역, 관련 상담 전문가 동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4.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을 강제 퇴거 하지 않도록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여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교육을 요구합니다.
 - 선주민 배우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2018년 3월 9일

이주여성들의 미투 참가자 일동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03112) 종로구 종로65길 16(, SSPM빌딩 4층)

전화_02)3672-8988 Fax_02)3672-8990

Email_ wmigrant@wmigrant.org

홈페이지 www.wmigrant.org